

그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,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으며, 세계 전체를 회개하도록 하는 길은 무엇인가! 이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.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예수의 뒤를 따랐던 운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.

예수를 따라서

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.

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습니다(사도 2, 44~45).

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든 것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(사도 4, 32).

이것은 곧 그들 사이에서 사유권 주장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. 그 구체적 실천이 34~35절에 이어진다.

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.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습니다.

이것을 트뢴치(E. Troeltsch)는 원시그리스도교의 사랑의 공산주

의(Liebenskommunismus)라고 했는데²⁶⁾ 서구의 성서학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34~35절을 편집구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희석시킨다.²⁷⁾ 그들 중 헵겔(M. Hengel)은 원시공동체에서 공동분배과정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, 이 본문은 그런 과정이 붕괴되어갈 무렵의 것이라고 본다.²⁸⁾ 그러나 그렇게 보는 근거는 충분치 않다. 그의 주장은 땅을 팔아 내놓는 사람이 특별히 거명된 것은 이미 그런 사람이 희소했던 증거라는 것인데, 도대체 그때 예수의 민중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는가? 34절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32절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나눔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. 그것은 긴박한 종말의식이 해이해짐과 함수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, 그 자체의 성격상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사도행전의 서술에서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(*κοινωνία*)라는 성격은 분명하나 공동으로 생산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. 이 점에서는 예수와 그의 민중의 행태가 다르지 않다. 그러면 그것은 정착된 공동체가 아니라 투쟁적 공동체인 것이다. 이런 성격을 종말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. 하여간 이러한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다. 처음 교회는 그 거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옮김으로써 기존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

26) E. Troeltsch, *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*, Gesamte Schriften, Bd. 1, Tübingen, 1912.

27) H. Wendt를 위해서 J. Jeremias, Cerfaux, R. Benoit, E. Haenchen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본다[E. Haenchen, *Die Apostelgeschichte(KKN)*, Göttingen, 1977, S. 193/이선희·박경미 역, 『사도행전 I』, [국제성서주석 33. 1], 한국신학연구소, 1987). 단, 콘첼만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(H. Conzelmann, *Die Apostelgeschichte (HNT)*, Tübingen, 1972², S. 38].

28) H. Conzelmann, *Loc. cit.*

그것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. 헬레니즘 영역이 바로 그 장이었다. 헬레니즘 영역을 선교의 장으로 정한 바울로는 세계선교라는 큰 목표 아래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. 그런 목표는 도시 중심의 선교가 자명화된 것이다. 그의 목표를 로마와 그리고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에 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는 큰 공헌을 했지만, 예수공동체를 그리스도교로 제도권에 안주하게 하는 발단이 되었다.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예수의 본뜻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났다.

교부 크리소스툼(Johannes Chrysostom)은 하느님이 공기, 해, 물, 땅 등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물로 골고루 나누어준 것을 말하고, 거기에 어떤 불화도 없이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하면서 그러한 평화가 파괴된 것은 사유화에서 비롯되었으며, 그것이 하느님의 질서를 깨뜨렸다고 말한다.²⁹⁾ 나치안츠의 그레고리(Gregor von Nazianz)는 가난과 풍요는 소위 자유인의 노예화와 더불어 죄악으로 타락한 결과이다.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. 하느님은 사람을 자유스럽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. 낙원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실이다.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간에게 욕심과 다툼이 생겨서 원래의 조화가 파괴되었다. 그리고 자연의 고귀함이 전제적인 법에 힘입은 소유욕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원사적 근거를 제시했다.³⁰⁾

마일란드의 감독 암브로시우스(Ambrosius, 339~397년)는 하느님의 질서를 자연과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. “자연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배했다. 즉 하느님은 모든 것이 생산되도록 명령

29) M. Hengel, *Eigentum*, S. 9f.

30) *a.a.O.*, S. 11.

했다. 이로써 먹을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며, 땅 또한 공유가 되게 했다. 자연은 공동체의 권리를 주었다. 불법적인 욕심이 사적 권리(그 결과 사유재산도)를 만들어냈다.” 이렇게 그는 자연법과 하느님의 질서를 일치시켜 사유권의 반자연성을 설명했다.³¹⁾

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실천하려는 것이 이른바 수도원운동이다. 수도원 교부 바실리우스(Basilus, 330~379년)는 소아시아의 부농에서 태어났다. 그는 에집트, 시리아의 수도원의 영향으로 자기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승이 되었다. 그는 루가 12장에 나오는 부자이야기를 예로 든 설교에서, 부를 자신을 위해 확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모르는 놈은 강도요 도둑놈이라고 했다.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“도대체 네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라! 어디에서 얻어서 세상에 가져왔나? 마치 너는 극장에 들어가 한자리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며 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자와 같다”고 했다.³²⁾ 이 같은 전통이 수도원에 그대로 흘러 아씨의 프란체스코가 이끄는 수도단으로 이어진다. 저들은 ‘그리스도를 본받아’(imitatio Christi)를 내세우고 실천하려 한 것이며,³³⁾ 비록 실천하지 못했어도 종교개혁자 츠빙글리(Zwingli)나 멜란히톤(Melanchthon)도 이 입장에 섰다. 예수의 민중운동을 해방운동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리는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. 그것은 바로 사유화된 권력이나 재산을 공으로 돌림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일체의 것이 사물화의 체제에서 해방되는 일이다.

31) *a.a.O.*, S. 11.

32) *a.a.O.*, S. 10.

33) *a.a.O.*, S. 11.